

LUXURY

October 2013



LUXURY HOMME SPECIAL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심프슨부인과 원저공의 패션스토리

Lifetime Beauty Plan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패션·전시·인물

Sulwhasoo

‘빈디’로 표현한 여성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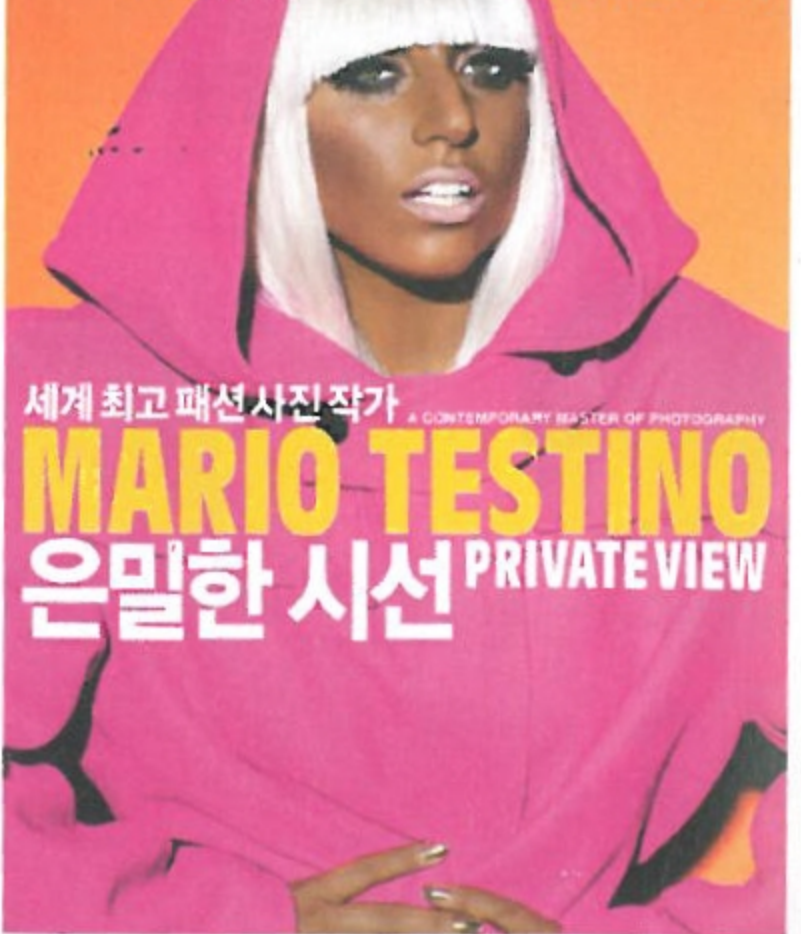
바티 커 개인전 <Anomalies>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레이스 같기도 하고 섬세한 붓 자국 같기도 하다. 한발 가까이 다가서면 미로처럼 얽힌 복잡한 구조에 매혹된다. 캔버스 위에 수천 개의 ‘빈디’를 찍는 인도계 영국 출신의 작가 바티 커Bharti Kher의 작품이다. 인도 여성들이 이마에 붙이는 색색의 빈디를 이용해 여성과 남성, 사회 계급, 신화에 대한 질문을 해온 작가는 세계적인 미술 전문지 <아트+옥션>이 선정한 ‘2013 세계적 컬렉터와 딜러가 꼽은 미래 스타 50명’에 꼽힌 현대미술계의 유망주다. 10월 5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그녀의 한국 개인전에서는 20여 점에 달하는 빈디 추상 작품을 비롯해 대형 조각 작품까지 만날 수 있다. 문의 735-8449

Art

세계
최고
패션
사진
작가

13.10.19 - 13.11.3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SEOUL ARTS CENTER



세계 최고 패션사진작가
A CONTEMPORARY MASTER OF PHOTOGRAPHY
MARIO TESTINO
은밀한 시선 PRIVATE VIEW

패션 사진의 일인자

<마리오 테스티노 : 은밀한 시선>

오리엔탈 문양의 실크가운을 걸친 반라의 여성이 막다른 벽에 기대 선 채 엄지손가락으로 속옷을 서서히 내린다. 그녀의 매끄러운 다리 앞에 무릎을 꿇고 웅크린 남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 패션 브랜드 구찌를 상징하는 알파벳 G가 새겨져 있다. 포르노를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상업 사진과 세련미와 기품이 넘치는 왕실 인물들의 초상 사진, 셀러브러티의 사적이고도 분방한 순간

을 포착해온 사진작가 마리오 테스티노. 그의 국내 첫 전시인 <마리오 테스티노 : 은밀한 시선>이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대표작 86점을 만날 수 있다. 문의 www.mariotestino.com



빈디를 반복적으로 붙이는 작업을 수 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작은 점을 이용해 문화와 성, 언어, 인간 존재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빈디의 가장 큰 매력이다. 빈디는 존경, 사랑, 번영이라는 의미 외에도 눈과 눈 사이에 위치한 ‘제3의 눈’이라는 은유가 포함되어 있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결국 반복 아닌가. 자유로워 보이는 예술

가 역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작업대 앞에 앉아야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반복이 창조하는 일련의 창의적인 움직임들에 관심이 많다.

‘가정’, ‘전통’, ‘여성’ 등을 주제로 한 대형 조각 작품도 선보여왔다. 거대한 문이 집 안으로 쓰러지는 것 같은 ‘Time Lag’와 검은색 유리 섬유로 빛은 여성상 ‘Cloud Walker’는 아름다우면서도 기괴한 느낌이 든다.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집은 여성의 공간이다. 가정은 여성이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하지만 이곳에 안락함과 평화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가정은 ‘보호’라는 명목 아래 여성의 유연한 사고를 위협할 만한 제약들을 만들어왔다. 내가 가정을 아름답게만 표현하지 않는 이유다.

바티 커, 'Square a circle 3'

